

광양 여행 지원책 집중 홍보... 관광객 유치 사활

**광양여행 지원금 최대 8만원
SNS 인증 등 홍보 효과 모색
남도숙박, 최대 12만원 할인
“부담 줄이고 만족도 높일 것”**

경기 침체로 인해 여행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다양한 여행 지원 방안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을 모색한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마블 광양여행’과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는 ‘남도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활용해 여행경비 부담은 낮추고, 만족도는 크게 높일 수 있는 광양 여행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먼저 ‘지구마블 광양여행’은 1~5인 규모 개별관광객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8만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관광지 방문, SNS 인증 등의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팀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별관광객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1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jylee33@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행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SNS 업로드를 완료하고 15일 이내 지급신청서 및 방문 관련 자료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남도숙박 할인 BIG 이벤트’는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매일 최대 3박, 15만원

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참여 대상은 전남도 외 주소를 둔 관광객으로, 희망자는 전남관광플랫폼 회원 가입 후 ‘남도숙박 할인 빅 이벤트’ 코너에서 ‘광양시’를 선택한 후 쿠폰을 내려받으면 된다.

쿠폰은 전남관광플랫폼에 입점한 이벤트 숙박업체에만 사용 가능하며 연박 시 최대 3박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할인은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이용 예정일의 속소를 선택하고 숙박료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아야 한다. 쿠폰을 받은 후 구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당일 지정 자동 소멸되고, 소멸 후 새로 받을 수 있다.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 회원은 1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담당자(061-797-273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끝없이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경비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취향과 경험의 중시로 개별화되는 트렌드를 반영한 ‘지구마블 광양여행’과 전남도와 함께하는 ‘남도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활용한다면 주머니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는 광양 여행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4월에 가기 좋은 명소로 옥룡사 동백나무숲, 배알도 섬 정원, 망덕포구, 섬진강 별빛 스카이, 전남도립미술관, 인서리공원, 별빛야경 등을 추천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청년꿈터, ‘취업 지원 컨설팅 데이’

매월 넷째주 수요일

광양청년꿈터는 (사)광양만HRD센터잡스퀘어와 협력해 구직과 이직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컨설팅 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취업 지원 컨설팅 데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준비, 맞춤형 전략 수립 등 취업 준비의 핵심 분야에 대한 1:1 전문 컨설팅을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적성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접수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프로그램 시작일 2주 전부터 5일 전까지다. 선착순으로 3명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청년꿈터(061-818-2020)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영양 교육으로 건강한 식습관 길러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총 234명 어린이 대상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에서 체험형 영양교육 ‘흙에서 배우는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흙에서 배우는 식사’는 광양시와 국립순천대학교가 함께하는 연계사업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 농업 시설인 그린스마트팜 유리온실과 교육 공간에서 진행됐다.

이날 체험형 프로그램은 광양시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1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234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유리온실을 견학하며 식물이 자라는 환경과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작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딸기, 바나나,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보고 맛보며 식재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체험 활동 후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도 진행됐다.

광양희망도서관, ‘알록달록 풍선쇼’

30일 오후 5시, 꿈나무극장서

광양희망도서관이 오는 30일 오후 5시 도서관 꿈나무극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4월 희망문화놀이터 ‘알록달록 풍선쇼’를 운영한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희망문화놀이



지난 9일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에서 운영된 ‘흙에서 배우는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유리온실을 견학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동 후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도 진행됐다.

이해인 센터장은 “스마트 온실에서 자라는 작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는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식재료

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긍정적인 식습관이 형성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청년 인력풀 구축사업 추진

소통·교류, 홍보 기회도

광양시는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인력풀(DB)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청년 인력풀(DB) 구축사업은 청년 인재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양시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소통, 교류, 개인(단체)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광양시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18세~45세)으로, 지역 내 활동하는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예술인은 물론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숨은 재능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나 광양청년꿈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광

양시 청년정책, 광양청년꿈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청년 개인(단체)의 홍보 등을 담은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청년 인력풀(DB)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광양시 청년을 찾습니다’ 이벤트도 진행된다. 내달 초까지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청년 DB’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청년 인력풀(DB) 구축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광양청년꿈터(061-818-2020)로 하면 된다.

오영숙 광양청년꿈터 센터장은 “청년 인력풀(DB) 구축이 완료되면 광양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 청년들 또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상호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터’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행사다.

도서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을 기념해 더욱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고에듀스공연팀의 ‘알록달록 풍선쇼’는

지팡이 꽃 등 다양한 요술 풍선을 활용한 마술 공연으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의 ‘문화행사 안내’에 안내돼 있다. 더 궁금한 점은 광양희망도서관(061-797-4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